

우리 보호자님.

환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.

코로나 위기를 버티는 상황이었지만
은혜마을 전 식구가 무사한 마음을
고지연은 잘 마무리 할수있어서
감사한 마음을 씁니다.

늘려만 한 마음으로 이해 해주시고
원해주시는 그 마음. 늘고 있습니다.

행복한 연말부. 사랑이 가득한

(2022년) 새해 빛이속에서

행운이 함께 하는 삶이 되시옵기를
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

은혜마을 4촌이 원합니다.